

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12.19.(금) 10:00
(지 면) 2025.12.19.(금) 석간

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, 천리포수목원 조성 기록물 안전하게 보존된다

- 국가기록원, 천리포수목원과 업무협약 체결하고 기록물의 디지털화 등 지원

-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(원장 이용철)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(금) ‘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’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(閔丙葛, Carl Ferris Miller, 1921~2002)*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.
*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,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
-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·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.
- 양 기관은 ▲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, ▲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, ▲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·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.
-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.
- 주요 기록물로는 ▲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 일지, ▲식물 채집·번식·관리 일지, ▲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, ▲해방 후 한국의 주요 문화재 등 사회상 등을 담고 있는 수목원 창립자 민병갈의 개인 사진·필름 등이 있다.

- 이에, 국가기록원은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해 천리포수목원의 기록물 보존 환경 등에 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며 중요 기록물의 훼손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.
- 훼손이 심한 시청각 기록물(영화필름, 릴테이프, 슬라이드 필름 등)은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전문 보존서고에 우선 위탁보존하고, 영화필름의 디지털화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종이 기록물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지원하는 디지털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 보존할 예정이다.
-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“국가기록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열악한 보존 환경에 노출된 민간의 희소하고 중요한 기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존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며,
- “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더불어 훼손 기록물 복원 등 기록물 활용을 위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	책임자	과장	최찬호 (042-481-1732)
		담당자	연구관	김정화 (042-481-1766)

